

#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집필 기준 논의

### 29명 참가 워크숍 개최 시대사별 팀 구성 완료 27일 최종기준 발표 3월 편찬작업 시작 예정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집필진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주 관광호텔에서 첫 워크숍을 갖고 시대사별 팀 구성, 본격적인 집필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역사 국정교과서가 집필진에 이어 편찬기준 또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전

체 공개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지난달 확정된 집필진 29명과 보조교재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전북·세종·광주·강원교육청 관계자 10여명 등이 참석해 역사교과서 보조교재의 집필방향과 편찬기준 등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또한 위원 중 6명의 집필위원은 '역사교재개발의 쟁점과 방향', '한국사 보조교재 편찬방안', '2016년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개발 근대사 집필 기획안',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개발기' 등을 발표하고 발표문을 토대로 전체토론회를 가졌다.

더불어 전북, 강원, 광주, 세종 지역에서 19명의 교사가 참여한 집필 교사진들은 6개 대단원에 맞춰 팀구성을

완료했다.

앞서 총10명의 교수진들은 지난달 집필명단 확정발표와 함께 분과를 나눴다.

교수진들을 필두로 시대사와 맞춰 구성된 각 팀은 팀별로 협의를 갖고 오는 27일 회의를 거쳐 집필기준을 발표하고 3월 본격적인 교과서 보조교재 편찬을 시작한다.

대안교과서 가안은 5월 중간자료 공청회를 거쳐 8월에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2017년 3월 국정교과서가 나오면 논란이 되는 부분을 수정해 8월 발표, 2학기가 시작되는 9월 일선학교에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발표된 집필위원 중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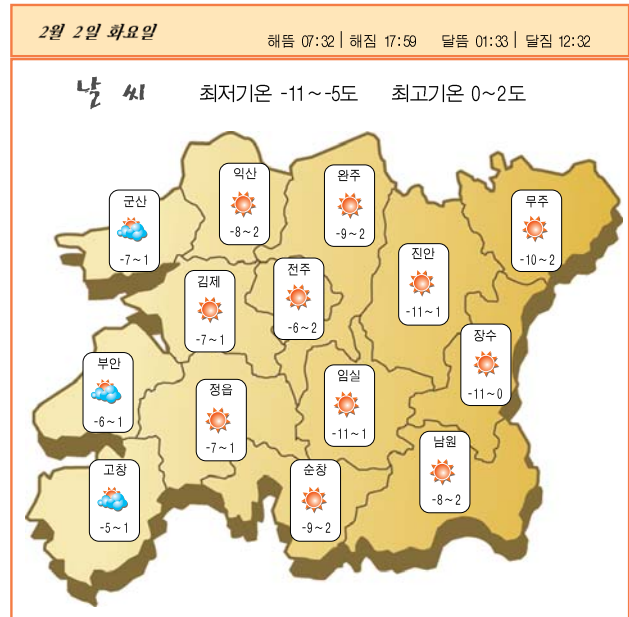
명의 교수가 집필위원에서 하차했다.

해당 교수는 서울대 박태균 교수와 강원대 류승열 교수로 두 교수는 "학사실정이 빠듯해 참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차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집필위원을 추가로 추천받아 역사교과서 보조교재에 투입할 예정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워크숍이 열린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필위원 명단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후 이곳저곳에서 불필요한 관심을 갖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기꺼이 이 작업에 참여해주신 것에 대해 머리속에서 고마움을 표현한다"고 말했다.

/고은지 기자



## 전북대, 신입 학·원장 4명 임명

전북대가 신입 학·원장 4명을 임명했다.

이남호 총장은 1일 의전원장에 송창호 교수, 법전원장에 김동근 교수, 사회대학장에 최원규 교수, 환생대학장에 명현 교수를 각각 임명하고 신입 학·원장 4명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김동근 신입 법전원장은 기획부처장과 홍보부처장 신문방송사 주간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해부학과 임플렉티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낸 송창호 신입 의전원장은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원을 지낸 실력과 교수다.

더불어 최원규 신입 사회대장은 1991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하며 대학 학생처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명현 신입 환생대 학장은 1998년 교직을 시작한 이후 취업지원본부 부본부장, 생체조경디자인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고은지 기자



왼쪽부터 김동근 법전원장, 최원규 사회대학장, 이남호 총장, 송창호 의전원장, 명현 환생대학장

## 김승환 교육감 “비민주적 학교문화 혁신돼야”

김승환 교육감이 “학교문화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사례가 있지 않은지 전북교육청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기 교직원들이 권위주의 학교문화를 바꾸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런 학교문화는 경기교육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식사, 술자리, 노래방으로 이어지는 화식문화, 부장교사들의 교

사통제, 학교안 성회통·성추행 대부분이 묵인되는 학교 현실 등 이런 문화는 과감히 혁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3 국회의원 선거에 공무원의 철저한 선거중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선거에 관해 공무원으로서 오해를 살만한 발언이나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은지 기자

## “초등 입학식 때 책꾸러미 받아요”

### 도교육청, 동화책 2~3권 선물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새내기 1만 5,000여명들에게 동화책 2~3권이 든 꾸러미가 선물로 주어진다.

전북도교육청은 1일 독서교육 활성화 차원으로 총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책 꾸러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은지 기자

책 꾸러미사업은 도내 419개 초등학교의 입학식에서 입학생 1만 5,000여명에게 책이 든 꾸러미를 선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부터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결국 독서교육으로 연결된다”며 “입학식에 책꾸러미를 선물받는 것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은지 기자

## 전주시, 설 귀성객 교통대책 상황실 운영

### 5일~10일 '특별 대책기간' 설정... 고속터미널 주변 임시하차장 마련·단속반 배치

전주시가 설 연휴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전주시는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을 '설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비해 고속터미널 주변에 대한 교통 분산 대책을 추진하는 등 설맞이 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올해 설 명절 연휴기간은 평소 주중 280회, 주말 300회 운행되던 고속버스

가 400~445회로 증차 운행돼 평소보다 100회~150회 이상 늘어나 터미널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 및 귀성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터미널 주변에 임시하차장을 마련하고 교통단속반을 배치하는 등 교통 분산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시는 기존에 운행되던 고속버스(300회)는 고속버스터미널 임시하차장 및 플랫폼 인근에 5~6대가 동시 하차토록 하고, 증차된 고속버스(100

회~150회)의 경우에는 터미널 사거리 전주시자원봉사센터 건너편 건산천 옆 도로에 임시하차장을 만들어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귀성이 집중되는 5일~10일까지 터미널 주변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통단속반을 고정배치해 진출입로 불법 주·정차와 이륜자동차를 단속하고 교통정체 유발 차량을 이동조치기로 했다.

시는 연휴 시작 전 명절준비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재래시장과 대규모 점포 주변도로는 근무조를 편성해 소통위주의 현장 계도를 강화하고, 관할 경찰서와 함께 현장에서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 차량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 연휴기간 교통상황과 약 및 각종 교통관련 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청과 양 구청에 교통대책상황실을 설치해 9개반 14명씩 총 70명의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유료공원 부설주차장 5개소 1828면(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동물원, 건산천)을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송준상 대중교통과장은 “귀성객들이 교통 불편 없이 고향을 따뜻한 정을 느끼고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영재 기자

## 국립대 총장 후보 선출 학교구성원 참여 확대

국립대학교 총장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협의제(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학구성원참여제(간선제)를 확정하는 내용의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학구성원참여제는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임용후보자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교수와 직원, 학생 외부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교육부는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참여 비율을 현행 75%에서 90%로 확대했다. 또 특정 구성원이 대학구성원 전체 8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고은지 기자

천년을 숨 쉬는 **전주한지**

천오백 지천년(絹五百 紙千年)이라는 말처럼 한지는 질기다  
전주한지는 만지면 느껴지는 촉감이 부드럽다  
전주한지는 통기성이 좋다  
전주한지는 보온성이 좋다

한지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

- 한지 수의, 납골함
- 한지벽지, 장판
- 수제한지담순지, 색한지, 공예용지, 예술지, 예단지, 예견지
- 응용한지인견한지, 대례지, 환희지, 손수운용지
- 아토피피부염, 미백에 효과가 있는 한지비누, 닥분말팩
- 각종 한지사 제품 넥타이, 양말, 지갑, 손수건, 러너 등

전주시 <http://www.jeonju.go.kr>